文대통령, 박지원 국정원장 낙점…왜?

2003년 대북송금 특검때 악연 시작…'문패권' · 탈당 등 감정의 골

靑 "과거사보다 미래 생각 결정"…박지원 "역사와 文대통령에 충성"

'문모닝'이라고 불릴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 비판에 앞장 섰던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장으로 발탁된 것과 관련 청와대는 5일 "선거 때 일어났던 과거사보다 국정과 미래를 생각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를 낙점한 것은 오로지 문 대통령의 결정"이라며 박 후보자 인사 뒷배경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 2일 외교안보라인 인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은 박 전 의원이었다. 그는 문 대통령과 숙원(宿怨)이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갈등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대북밀사 역할을 했던 박 후보자는 이로 인해 옥고를 치렀다. 이때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이다.

2015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당시 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을 향해 '친노패권주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경선 규칙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선 "무능하고

비열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후 안철수 전 의원과 탈당해 국민의당을 만들었고 2016년 총선에서 호남에서만 28석 중 23석을 가져가며 문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안겼다. 이듬해 대선에서도 아침마다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해서 '문모닝'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안보라인은 콕 찝어서 역할을 한정할 수 없다. 국가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이 서로 교차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박 후보자에 관해선 다양한 루트로 추천이 있었다. 어떤 역할로 추천이 왔는지 알 수 없지만 한자리였겠냐"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를 직접 국정원장 후보자로 가닥을 잡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정의용 · 임종석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 이렇게 역할분담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선 지난 일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대통령이 (두 사람의 악연에 관한) 평가가 있을 것이란 것을 모를리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정과 미래를 중시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가 페이스북에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 하겠다"고 남긴 점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과 박 후보자가 구원에 얽매이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의기투합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낙점한 것은 지난달 17일 남북관계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원로 초청 오찬 이후라고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찬을 계기로 박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해야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박 후보자는 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아주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 인사는 발표 당시 기자실에서 탄성이 들릴 만큼 인사 전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관해선 "박 후보자 본인에게 여러 언론에서 취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새어나가지 않았다"며 "(박 후보자) 스스로 발표 당일까지 보안을 유지했다. 인사 발표 15분 전까지 생방송에 출연한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는 2일 오후 2시 MBC 뉴스외전 '박지원의 정치 전망대' 생방송에 출연해 진행자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라는 인사에 "MBC 대단히 감사했습니다"라고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기도 했다.

김윤호 기자

野 '공수처+청문회+국정조사' 원내투쟁 선포

與 "국정조사 불가"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단독 원구성에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안 처리까지 여당 뜻대로 국회가 돌아가자, 미래통합당은 보이콧을 풀고 원내투쟁을 선언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부터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 나치가 수권법안 하나로 독재의 길을 갔듯이 집권세력은 과반 의석이라는 만능열쇠로 일당독재의 길을 가려는 것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여당 독주' 비판을 이어갔다.

통합당은 5개 특별위원회 ·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정부 · 여당 공세에 나선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김정은이 1년 내에 완전히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다는 거짓말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겠다"며 "위안부 할머니를 사리사욕의 미끼로 삼은 윤미향씨의 치졸한 행태를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한명숙 전 총리 재수사 소동, 울산시장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 등에 대해 국회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검사장이 뒤엉켜 싸우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은 특검을 발동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고 오는 15일까지 공수처를 구성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청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당의 국정조사 요청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응수했다.

뉴스1

소병철 "檢, 국민께 혼란 준 것 대국민 사과부터"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 · 광양 · 곡성 · 구례갑)은 1일 "검찰은 '검언유착' 관련 내부 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집행 기관이 국민께 혼란을 주는 것 자체가 죄송스러운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검찰 내부 충돌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장관이 답변 중에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 다행이다"며 "그런데 최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서로 입장 발표만 할 뿐 국민께 심려를 드려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가 없다"고 지적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당권은 이낙연 · 김부겸 둘중 하나

민주당 8 · 29전당대회 홍영표 · 우원식 불출마

더불어민주당의 8 · 29 전당대회가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간 양자구도로 정리됐다.

'이낙연 대세론' 속에 우원식 홍영표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간 4파전이었던 당대표 후보군은 친문(친문재인)그룹 홍 의원에 이어 우 의원도 출마의 뜻을 접으면서 '이낙연 대 김부겸' 양자대결로 압축됐다.

우 의원은 5일 "당면한 민생위기 극복에 더해 대선과 정권재창출에 복무할 공정한 관리자를 자임한 제가 대선주자들과 경쟁하는 상황 자체가 모순이며 난감한 일이 됐다"며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전당대회가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완충하고 경선의 흐름을 가치와 노선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도 함께 있었다"며 "결국 당 안팎의 많은 분들과 상의한 끝에 지금 비상한 시국에 치열한 경쟁보다는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은 다시 현장에서 당의 개혁을 일구며 뒷받침할 때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이낙연 의원과 각을 세워온 '친문' 홍 의원도 지난 3일 불출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당대회가 양자구도로 정리되면서 '이낙연 대세론' 속에 김부겸 전 의원이 얼마나 선전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당 입장에선 예비경선으로 특정 주자를 '컷오프'해야 하는 부담을 덜었다.

이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오는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를 선언한다.

이 의원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라는 무게와 소명, 코로나19 국난극복 등 만만치않은 국정현안에 대한 집권여당의 책임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국회에서 출마선언을 하는 이 의원과 차별화하고 2년간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것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당사에서 출마선언을 하기로 했다. 메시지 측면에서도 당 대표로 선출될 경우 대선에 불출마해 임기 2년을 채우겠다고 밝히고, 당의 안정적 리더십을 약속하며 이 의원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차기 대권 후보군에 속하는 두 인사의 정면 승부가 성사되면서 이번 당권 대결은 영호남 대표주자의 대결로 비화할 우려도 있다. 특히 대선후보 경선 예선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경쟁 속에서 서로 불필요한 생채기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년 넘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이 의원에 대한 당내 여론을 살펴보면 '유력 대선주자를 당이 스스로 흠집을 낼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 당내 몇 안 되는 영남권 주자인 김 전 의원은 '민주화운동'이란 큰 틀 속에서 당내 의원들과 정서적인 친밀도가 높은 편이다.

당심의 중심에 선 '친문' 세력의 여론은 아직 특정 주자로 일치단결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 친문계 인사는 "전대에 개입해 대결 구도로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컨센서스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주자들은 당권에 이어 다음 도전까지 염두에 두고 이번 전당대회에 정치적인 명운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 · 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